

성범죄자 집단에 나타난 성범죄 유발요인의 음란물 이용에 대한 예측

윤 정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성범죄와 음란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예측하는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성범죄와 음란물의 쌍방향적인 예측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88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음란물 유형을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각의 유형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음란물 유형에 상관없이 과다성욕은 음란물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음란물 사용은 이외에도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에 의해 예측되었다. 이 밖에 아동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성향, 타인에 대한 상해환상,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이었다. 폭력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격가학증, 타인상해 환상, 육체적 싸움 성향 등 공격성 관련 요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성인음란물과 달리 불법음란물 사용이 주로 성과 공격성 관련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자 중 불법음란물 사용경험이 상승적인 사람과 음란물 범죄자 등을 구별하고 교정치료시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음란물 사용 재범이나 성범죄 재범으로까지의 확대를 예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란물, 성범죄, 성범죄 유발요인, 성범죄자 치료

[†] 교신저자: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 02-3460-5140, E-mail: yoonjsk@kic.re.kr

최근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중 일부가 범행 전 음란물을 자주 사용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궁금증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필름이나 잡지,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였고 음란물 사용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남성의 하위 문화식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음란물 접근과 이용이 손쉬워진 가운데 음란물, 특히 아동 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배포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서¹⁾ 음란물 사용을 문화적 유희만으로는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월성이 존재하는데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대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영상이 무료이고 저장 및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윤정숙, 2012). 미국의 심리학자 Cooper(2002)는 인터넷 사용의 3가지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접근의 수월성(Accessibility), 비용의 저렴성(Affordability), 익명성(Anonymity)²⁾.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의 발달과 함께 웹하

드나 파일공유방식 등의 기술적 진보도 음란물 이용을 손쉽게 하는 매체가 되어 오면서 한 때 음란물의 대량 유통을 가능케 했으나, 현행법상 불법 음란물로 규정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 등은 소지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일부 폭력적인 성인 음란물도 제작, 배포 등에 대해 형사적 제재³⁾가 강화되면서 음란물의 무분별한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 자체에 이용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이 문제가 되어 명백한 불법 음란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구자들은 음란물 이용과 범죄, 특히 성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도를 해 왔다(예: Kingston, Malamuth, Fedoroff, Marshall, 2009; Knight & Schatzel, 2005 등). 음란물 사용에 대한 설명 변수를 찾는 연구는 실험 연구, 설문 연구, 질적 연구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설문 연구이며 대체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연구와 범죄자에 대한 연구 두 종류가 있고 두 유형 모두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음란물 이용에 선행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탐색적 방식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특히 성범죄와의 연관성에 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이 세 가지는 인터넷을 소위 “Triple A engine”으로 불러주게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심을 두는 연구자들(예: Malamuth 등)은 성범죄의 발생에 관한 특정 이론(예: 합류 모델(Confluence Model))에 음란물 이용을 추가시켜 음란물의 사용이 성범죄 발생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음란물 노출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가령 이근호와 강해자(2005)는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보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으며 이것이 음란물 노출 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성식(2004)의 연구에서는 음란물에 빈번히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하여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특히 폭력적인 음란물에 노출될수록 성폭력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2012)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전체 성범죄자 중 성범죄 범행 직전에 아동음란물을 보았다고 보고한 사람은 16%에 달하였으며, 성범죄 유발요인 중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이나 인지적 왜곡 등이 아동 음란물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범죄 유발요인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범죄 발생 혹은 재범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로서 보통 만성 위험요인(stable risk factors)이라고 불리운다. Thornton(2002)과 Hanson & Harris(2001)는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만성 위험요인)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일탈적 성적 관심/성적 조절 문제, 왜곡된 태도/성범죄를 용인하는 태도, 사회정서적 기능/친밀감 결핍, 자기 관리/자기 조절 문제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방향성을 지니기가 힘들고 음란물 중 아동 음란물과 폭력 음란물은 비사용자에 비해 사용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음란물과 성범죄 유발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음란물 이용을 예측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 신념, 정서적 성향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범죄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음란물 이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성범죄 유발요인이 음란물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성범죄 경로에서 음란물 이용은 약물 이용등과 마찬가지로 즉시적 유발요인, 즉 범행의 촉진제로 간주되고 있는데(예: Yates의 성범죄 경로를 설명하는 자기조절 모델(Self-Regulation Model)참조, 2006) 음란물 이용이 범죄에 비교적 가깝게 선행한다면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성범죄 유발요인이 음란물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이러한 만성적 유발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음란물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음란물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의 이용과 관련한 공변수로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태도 및 정서 변수들(예: 성적 일탈성,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반사회적 태도 등)이 음란물 이용을 어떻게 예측하는 지 살펴보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음란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어떠한 성범죄자들은 음란물 이용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가를 설명하려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음란물 이용에 대해 성범죄 유발요인의 역할을 보는 것으로 이 때 음란물은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며, 성범죄 유발요인은 다수의 경험적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함이 입증된 요인으로 한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성범죄자들의 음란물 이용패턴을 이해하고 왜 어떠한 성범죄자들은 보다 더 혹은 덜 음란물을 이용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음란물의 유형 중 불법적 부류에 속하는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여 범죄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예정이다.

음란물의 정의

음란물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시대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해왔다. 미국 검찰총장 음란물 위원회(1986)는 “사람들이 음란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 상당수가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성묘사나 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술하였다(미국 법무부, 1986, p. 227, Kingston 등(2009)에서 재인용).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는 일차적으로 성적 흥분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적 내용(성적 행위, 신체 일부)의 다양한 매체 자료(예: 영화, 인터넷 등)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이용된다(Kingston 등, 2009).

한편, 음란물이 성적 흥분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Senn과 Radtke(1980)는 음란물을 성인물(에로티카), 비폭력 음란물, 폭력 음란물로 구별하여, 성인물(에로티카)은 스스로 선택하여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즐거운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미지로, 비폭력 음란물은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내용은 없지만 모델의 자세(위치)나 소품으로 복종이나 폭력의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폭력 음란물은 어떠한 사람이 상대에게 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 폭력이 묘사된 성적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Knight(2008)은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MIDSA) 개발시 음란물 사용에 대한 항목들을 포함시켰는데 요인분석 등을 통해 분류한 음란물의 유형은 전통적 성인음란물, 동성애 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이었다.

음란물 이용과 상관변수들

음란물 이용과 상관이 있는 변수들은 다양하지만, 우선적으로 인구통계적 변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음란물 연구 중 인구통계적 변수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이다. Malamuth(1996)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

한 문화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음란물을 더 많이 이용하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성 모두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덴마크에서도 그러하다(Kingston 등(2009)에서 재인용). Janssen, Carpenter & Graham(2003)의 연구에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화에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음란물 이용과 관련된 상관 변수로서 성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가령 Lo & Wei(2005)는 음란물 사용이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sexually permissive attitudes)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night 등(2005)은 음란물 사용이 과도한 성욕, 성적 집착, 성도착적 환상(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음란물 이용을 예측하는 감정 변수로서 기질적 성감정(dispositional sexual affect)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기질적 성감정은 사람이 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다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Gunter, 2002)을 일컬으며 Oliver(2002)는 기질적 성감정을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성향으로 풀이하였다. Paul(2009)은 위계적 회기분석을 사용한 결과, 기질적 성감정 점수는 폭력 음란물보다는 일반 음란물 사용을 더 잘 예측하고, 반대로 사이코패시 요인과 자극 추구 차원은 폭력 음란물 사용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기질적 성감정은 일반 음란물을 더 잘 설명하며 비일반적 음란물 같은 경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니즈보다는 그 니즈가 반사회적 혹은 자극 추구 성향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음란물의 상관변수를 밝히는 연구를 메타분석 위주로 살펴보면 Allen, D'Alessio, Brezgel(1995)은 음란물의 공격 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30개의 실험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음란물 노출과 강간통념 수용에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Allen, Emmers, Gebhardt, Giery(1995b)가 비실험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메타분석에서는 강간통념 수용과 음란물 사용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를 찾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Oddone-Paolucci, Genuis, & Violato(2000)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음란물 사용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Hald, Malamuth, Yuen(2010)의 메타분석 연구 역시 남성의 음란물 이용과 여성에 대한 폭력 지지태도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비폭력적 음란물 이용보다 성적으로 폭력적인 음란물 이용과 유의하게 상관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의 관계야말로 학술적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음란물과 성범죄의 관계에 관하여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떠한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형사정책 실행 및 입법 뿐 아니라 범죄자 평가 및 교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Kingston 등, 2009). 음란물 이용이 성범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나뉘어 왔으며, 모두 성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윤정숙(2012)이 수행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가 있다. 성범죄 발생요인을 측정하는 미국 MIDSA(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의 한국 번역판을 사용하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사용빈도와 성범죄 유발요인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음란물 사용과 관련 있는 성범죄 발생요인 중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 아동에 대한 성적 가학증이 가장 상관관계 크기가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가학증은 폭력 음란물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 유형보다 아동 음란물 사용에 더욱 이끌릴 가능성이 있으며, 아

동을 성적으로 가학하는 환상을 하는 사람들은 폭력 음란물 사용에 이끌릴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결과는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 사용이 아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나 성적 흥분감, 성적 가학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급하면서, 음란물 사용과 성범죄간의 관계가 쌍방향일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는 쌍방향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이뤄진 연구에서는 음란물 이용이 성범죄를 예측하며, 이러한 결과는 심지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Carr와 VanDeusen(2004)의 연구나 Malamuth 연구 그룹(1998, 2000)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성범죄 행위의 위험요인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인간적 섹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남성들 중 음란물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음란물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 공격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Kingston, Fedoroff, Firestone, Curry, & Bradford (2008) 연구에서는 음란물 사용이 범죄 재범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341명의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성범죄의 예측모델로 Malamuth 연구진이 제안한 ‘위계적-매개적 합류 모델(Hierarchical-Mediational Confluence model: 이하 HMC 모델; Malamuth, 1986; Malamuth 등, 2000; Malamuth & Huppel, 2005; Vega & Malamuth, 2007)을 보완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HMC 모델은 성범죄자들(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법망에 포착이 안 된 사람들까지 포함)이 성적 공격성을 발휘할 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서는 성범죄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적대적 남성성(hostile masculinity)으로 대개 여성을 향하여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것과 여성을 지배하고 모욕을 주며 통제하는 것

을 통해 만족을 얻는 일군의 성격적 특성을 지칭하고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비인간적 섹스(impersonal sex)로 성행위에 대해 책임 없는 게임식의 성향을 보이는 것과 친밀감이나 책임감 없이 그러한 행동에 가담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HMC 모델은 기존의 경로 지향적(path-oriented) 모델과 달리 누적적 모델이며 조건적-확률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새로운 예측변수(예: 음란물 이용)를 기존의 다른 변수와의 맥락 속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ngston 등, 2008). 연구진은 이 모델을 근거로 음란물 이용의 예측적 유용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음란물은 성적 공격행위의 유의미한 추가적 예측변수로 성범죄의 위험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재범 예측에 유의하게 추가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음란물과 성적 공격행위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가 관측되었는데, 음란물 사용 빈도는 저위험군에서는 둘 간에 작은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 고위험군 성범죄자에게 보다 큰 효과크기를 보여 음란물 사용 빈도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에게는 음란물 이용이 성범죄, 성범죄 이외의 폭력범죄, 일반 범죄 재범 모두에서 중-고 수준의 효과크기로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음란물의 내용(즉, 일탈적 내용을 포함하는 음란물)은 위험군과 상관없이 성범죄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음란물의 예측적 유용성은 공격성과 관련된 위험 특징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음란물 이용에 따라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바로 공격성과 관련된 위험 특징이 높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을 성범죄의 예측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인들과 융합하여 관찰해야 한다(Kingston 등, 200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성범죄자가 음란물 이용에 영향을 받아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음란물 이용은 고위험군 집단에 더 악의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위험군의 분류는 대개 정적 위험 요인을 보충계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점수에 근거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근래에 와서는 동적 위험 요인(통상 범죄유발요인으로 불리움)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적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음란물 사용을 더 많이 하고 또한 성범죄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모든 성범죄자가 음란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유형의 성범죄자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동적 위험 요인)이 음란물 이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음란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인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로 나누어 성범죄 유발요인이 각 유형의 음란물 이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성적 집착, 성적 강박, 과다 성욕 등의 성척도는 일반 성인 음란물을 포함 모든 음란물에 대해 그 사용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 등, 아동과의 성적 일탈 관련 척도는 음란물 유형 중 아동 음란물의 사용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격성과 사이코패시 성향, 가학적 성향 등은 폭력 음란물의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구 방법

피조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전국 13개

교도소 및 1개의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인 남성 성범죄자 350명으로, 조사에 참여한 성범죄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촉형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가해자로 한정하였다. 이 때 접촉형 성범죄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수용중인 성범죄자는 성인 남성 성범죄자로 가급적 수용기간 3년 미만의 수용자로 한정하였다. 수용기간을 한정한 이유는 음란물 사용 경험과 성범죄 유발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평가항목들이 성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를 질문하고 있고 수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치료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자 특성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소단계의 수형자로 한정했을 때는 충분한 수의 대상자가 확보되지 않았고 연구의 특성상 분석의 파워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용기간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평가도구의 많은 항목들이 성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인식을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지 작성 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평가 문항의 독해 능력이 중학교 1학년 이상의 학력수준을 요구함에 따라 저학력자나, 지적/인지적 장애를 가진 수형자는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평가지를 완성한 350명의 대상자 중, 응답 편향이 두드러지거나, 설문지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응답자,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288명의 성범죄자 집단이 완성되었다.

측정 도구

음란물 사용 경험

음란물 사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음란물 종류를 성인 음란물, 아동 음란물, 폭력 음란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음란물 사용 경험을 성범죄 범행 1년 전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음란물 유형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먼저 성인 음란물은 성인에로물, 잡지, 성

인 아동 등을 질문 항목에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여성의 나체 모습이 나오는 누드 음란물과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아동 음란물 역시 아동의 나체 모습이 나오는 음란물과 아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음란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사용 경험을 질문하였다. 폭력 음란물의 경우 성행위를 하면서 결박, 수갑, 채찍질 등을 이용하는 음란물과, 성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다치게 하거나, 다치는 내용의 다소 강도 높은 폭력 음란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각 음란물 유형에 대한 일반적 사용 경험을 질문한 후, 음란물 사용 후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음란물 사용 경험척도는 모두 8점의 리커트 척도(1점: 하루에 3번 이상, 2점: 하루에 1~2번, 3점: 일주일에 3~5번, 4점: 일주일에 1~2번, 5점: 한 달에 1~2번, 6점: 1년에 6~10번, 7점: 1년에 5번 미만, 8점: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예시문항은 다음과 같다(나는 성인음란물(성인 에로물, 잡지, 성인 아동 등)을 찾아서 본 적이 있다).

K-MIDSA

K-MIDSA는 MIDSA(Multidimensional Inventory of Development, Sex, and Aggression, Knight, 2008)⁴⁾의 한국판으로서 한국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요인을 측정하여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 시 진단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K-MIDSA의 원본인 MIDSA는 본래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 뿐만 아니라, 성장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MTC: R3(Knight & Prentky, 1993)라는 성범죄자 분류도구에서 출발하여 다면적 특성을 평가하는 현재의 도구로 발전하게 된다. MIDSA는 미국에서 3

4) MIDSA의 개발 배경 및 세부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위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인 윤정숙 외(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의 집단을 통한 타당화 검사를 통해 척도의 내적 합치도 및 구성 타당도를 입증하였고, 성범죄자 치료자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버전을 출시하였다.

MIDSA는 성범죄와 즉시적으로 관련된 각종 태도 및 경험을 측정하는 기본 영역, 성장사 영역, 반사회적 행동 영역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판인 K-MIDSA는 기본 영역에 있는 척도들만을 사용하였는데, 성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태도, 즉 ‘범죄유발요인’을 파악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현장에 소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음란물 사용경험을 예측하는 범죄유발요인(=범죄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MIDSA의 각 소척도 중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음란물 사용경험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척도만을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K-MIDSA의 전체 대척도와 소척도 확인을 위해서 윤정숙(2012, 2013) 참조). 이러한 척도는 주로 성과 관련된 척도와 공격성과 관련된 척도들이었다. 각 소척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소척도는 5점의 리커트 척도(1점: 없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자주 혹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 척도(Sexualization Scales). Ellis(1993)와 Malamuth(1998)는 과도한 성적 충동이나 성욕이 성범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성행위를 시작하며, 더 많은 수의 상대와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Abbey, McAuslan, Zawacki, Clinton, & Buck, 2001; Kanin, 1985; 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Senn, Desmarais, Verberg, & Wood, 2000). 또한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성적 충동과 성행위 빈도가 높고, 성적 일탈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척

도의 3개 소척도들(성적 강박, 집착, 과다 성욕)은 성적 동기의 빈도와 강도의 양상을 주로 다룬다.

성적 강박 척도는 성적 강박 성향(sexual compulsivity)을 측정하는 척도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적 강박 성향이란 성적 충동을 쉽게 억제할 수 없으며,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꼭 발산해야만 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척도의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성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성적 집착 척도는 성적 집착 성향(sexual preoccupation)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자주 성행위에 관해 생각하거나 몽상하거나,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잠을 잘 때 섹스에 관한 꿈을 꾸다.’ 과다 성욕 척도는 성적 충동(sexual drive)이 지나침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응답자가 성행위를 자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매일 자위행위를 하거나 섹스를 해서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표출적 공격성 척도(Expressive Aggression Scales). 일부 성범죄자는 여성에 대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환상을 자주 하며, 실제로 공격 행동을 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Knight, Rosenberg, & Schneider, 1985).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해 상당한 분노와 경멸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다. Nick Groth(Groth & Birnbaum, 1979; Groth & Burgess, 1977)와 Murray Cohen(Cohen, Seghorn, & Calmas, 1969; Cohen, Garafalo, Boucher, & Seghorn, 1971)이 소개한 성인여성대상 성범죄자 분류 체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분노 보복형 혹은 대체된 분노 유형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분노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시 불필요한 폭력이 동반된다고 지적하였다. 표출적 공격성 척도는 표출적 공격

환상 척도와 행동 척도 두 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출적 공격 환상 척도는 비성적인(nonsexual) 일반 상황에서 여성에게 분노를 느끼거나 그들을 해하거나 위협하는 생각을 측정한다. 전체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여성을 위협하거나 겁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표출적 공격 행동 척도는 비성적인 일반 상황에서 여성을 때렸거나 해를 입혔음을 의미하며, 전체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여자가 날 너무 화나게 해서 마구 때린 적이 있다.’

사이코패시 관련 척도(Psychopathy-Related Scales). 성인여성 대상의 성범죄는 사이코패시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Knight & Guay, 2006). 사이코패시의 두 구성요인인 정서적 무감성/기만적 대인관계와 충동성/반사회적 성향은 일반인 표본에서 강간을 예측하는 요인이며(Knight & Sims-Knight, 2003; Kosson, Kelley, & White, 1997) 성범죄자 표본에서도 강간 빈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night & Sims-Knight, 2004). 또한, 사이코패시는 성범죄자의 일반 및 폭력 범죄 재범을 예측할 때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nson & Bussière, 1998; Knight & Thornton, 2007; Rice, Harris, & Quinsey, 1990; Serin, 1996; Serin & Amos, 1995; Seto & Barbaree, 1999).

K-MIDSA에는 사이코패시와 관련하여 6개의 소척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타당화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성이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던 2개의 소척도만을 사용하였다(타당도 확인을 위해서 윤정숙 외, 2012; 윤정숙 외, 2013 참조). 먼저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요인은 정서적 무감성과 함께 사이코패시를 평가하는 PCL-R의 첫 번째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시는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trick, 1994; Patrick & Zempolich, 1998). 성인여성 대상 성범죄를 설명하는 모델(Knight & Sims-Knight, 2003, 2004)과 아동 성범죄를 예측하는 모델(Daversa & Knight, 2007)에서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척도는 성범죄를 예측하는 중요한 잠재적 성향으로 발견되었다.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타인에게 속임수를 쓰고 타인을 이용하며, 거짓말을 통해 타인을 조작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타인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인 적이 있다.’

두 번째 척도는 충동성 척도이다.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 PCL-R의 두 번째 요인인 충동성은 성범죄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night & Thornton, 2007; Prentky, Knight, Lee, & Cerce, 1995). 성범죄자에 대한 PCL-R의 예측 타당도 연구에서 PCL-R의 충동성/반사회성 요인은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night & Thornton, 2007; Langton, 2003; Serin, Mailloux, & Malcom, 2001). 충동성 척도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제력을 잃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충동적으로 혹은 생각 없이 행동한 적이 있다.’

과잉 분노 척도 (Pervasive Anger Scales). 과잉 분노는 성인여성 대상의 성범죄에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Knight & Thornton, 2007). 성인 표본을 주로 포함했던 Hanson과 Morton-Bourgon(2005)의 메타 분석에서도 분노 정서 상태에서 겪는 감정조절의 어려움은 성범죄 재범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분노척도의 4개 소척도 중 한국의 타당화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 타당도가 양호한 3개 소척도만을 선정하였다(타당도 확인을 위해서 윤정숙 외, 2012; 윤정숙 외, 2013 참조). 먼저, 육체적 싸움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체적 싸움을 자주 하는 경향을 평가한다.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몸싸움을 하는 것을 즐긴다.' 타인 상해 환상 척도는 타인을 해하거나 타인이 해를 입는 것을 보는 환상에 대한 빈도를 평가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는 게 즐겁다.' 상습적 분노 척도는 분노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향을 평가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불평을 많이 하거나 자주 분노하거나 분노를 터뜨림을 의미한다.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너무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싶다.'

아동 성폭행 척도(Child Molestation Scales). 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아동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son & Morton-Bourgon, 2005). Able 등(1988)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신념)은 사회적 비난 대상의 아동 성범죄를 본인과 타인으로부터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Prentky 등은(1997) 아동을 향한 성 고착(sexual fixation)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아동 성폭행 척도는 3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동 성적 흥분 척도는 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환상을 평가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아동에게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아동 성적 가학증 척도는 아동을 성폭행하면서 가학적 행위를 하

는 환상이나 실제적 행위를 평가하며 아동 성적 흥분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린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성적으로 흥분한 적이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 척도는 아동과의 성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문항은 아동은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성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문항은 아동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을 측정하고 있다.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성폭행을 당한 많은 아이들은 그로 인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용 경험에 대한 척도화 작업이 먼저 이뤄졌다. 음란물 사용 경험은 각 항목을 역코딩한 후 합산치를 구하여 성인음란물과 아동음란물은 32점 만점 척도, 폭력음란물은 24점 만점의 척도가 산출되었으며 내적 일관도가 확인되었다. K-MIDSA의 소척도 역시 척도화 작업과 함께 내적 일관도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음란물 사용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음란물 사용 경험과 관련된 K-MIDSA의 소척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이후 각 유형의 음란물 사용 경험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란물 사용 경험은 상당수가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여 분포도가 0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특히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은 왜도값이 2 이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할 수 있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정규분포이면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감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모두 SPSS 18.0을 사용하여 이뤄졌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죄경력을 보면(표 1 참조),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으며 성범죄로 입소하기 전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많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중·고등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월 200만원 이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은 성범죄의 체포 및 판결 횟수 평균값이 2.24회, 일반범죄(성범죄 포함)의 체포 및 판결 횟수 평균값이 3.41회로 나타났으며 성범죄 경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연구대상자 중 초범자가 109명(37.8%), 재범자가 179명(62.2%)을 차지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87명(30.2%), 성인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205명(71.4%)이었다.

측정척도의 내적 일관도

측정척도를 대상으로 내적 일관도를 확인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음란물 사용 경험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관도는 .899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K-MIDSA의 대책도들간 각 소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관도 역시 대부분의 척도가 .70 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예외적으로 표출적 공격환상 척도와 육체적 싸움 척도만이 각각 .653, .634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음란물 사용 경험 분석

성범죄 유형을 13세미만의 아동 성범죄자, 청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죄경력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결혼경력	없음	151(52.4)
	있음	137(47.6)
사건전 직업유무	없음	54(18.8)
	있음	233(80.9)
	무응답	1(0.3)
	초등졸	35(12.2)
학력	중등졸	69(24.0)
	고등졸	138(47.9)
	대학교졸	38(13.2)
	대학원졸	2(0.7)
	무학	4(1.4)
	무응답	2(0.7)
	월평균소득	없음
월 100만원 이하		109(37.8)
월100만원~200만원		75(26.0)
월200만원~300만원		27(9.4)
월300만원~400만원		9(3.1)
월400만원~500만원		12(4.2)
연령 (평균 및 표준편차)	무응답	3(1.0)
범죄경력		
성범죄 체포 및 유죄판결 횟수 (평균 및 표준편차)	2.24(1.42)	
일반범죄 체포 및 유죄판결 횟수 (평균 및 표준편차)	3.41(1.95)	

소년·성인여성 대상의 성범죄자, 두 집단 모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혼합형 세 가지로 나눈 후 음란물 사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표 2. 측정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	Cronbach's α
음란물 사용 경험	
성인음란물 사용 척도	.944
아동음란물 사용 척도	.944
폭력음란물 사용 척도	.899
K-MIDSA 성 척도	
성적집착 척도	.885
성적강박 척도	.885
과다성욕 척도	.827
K-MIDSA 표출적 공격성 척도	
표출적 공격환상 척도	.653
표출적 공격행위 척도	.755
K-MIDSA 과잉분노 척도	
타인상해 환상 척도	.753
육체적 싸움 척도	.634
K-MIDSA 사이코패시관련 척도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척도	.704
충동성척도	.817
K-MIDSA 아동성추행 척도	
아동성추행 인지적 왜곡 척도	.763
아동성적흥분 척도	.837

표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음란물 사용 경험 비교

음란물 유형	성범죄 유형	M	SD	F
성인음란물 사용경험	13세미만 아동대상	14.18	7.60	.179 ($p=.836$)
	청소년·성인대상	13.27	6.72	
	혼합형	13.50	7.06	
아동음란물 사용경험	13세미만 아동대상	9.40	8.02	3.04 ($p=.051$)
	청소년·성인대상	6.98	5.22	
	혼합형	8.62	6.89	
폭력음란물 사용경험	13세미만 아동대상	5.18	4.67	1.713 ($p=.182$)
	청소년·성인대상	4.68	3.37	
	혼합형	5.69	4.76	

다. 먼저 성인음란물과 폭력음란물의 경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음란물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평균값이 9.40, 혼합형 성범죄자의 평균값이 8.62로, 청소년·성인대상의 성범죄자는 6.98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05 수준의 통계적 유의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1$) 사후 검정에 따른 두 집단 간 다중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연구 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성범죄 유발요인이 음란물 사용 경험을 예측하는지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음란물 사용 척도와 성범죄 유발요인 척도들(K-MIDSA)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척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음란물 유형과 K-MIDSA의 각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인음란물은 과다성욕(HS) .572, 성적강박(SC) .512, 성적집착(SP) .518로 성적도와 상관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

표 4. 척도 간 상관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PN	CPN	VPN	CSS	CSA	CCD	PAF	PAP	PAA	CON	IMP	EAB	EAF	HS	SC	SP
(1)	1															
(2)	.608	1														
(3)	.495	.653	1													
(4)	.288	.470	.518	1												
(5)	.398	.624	.439	.641	1											
(6)	.249	.449	.359	.474	.642	1										
(7)	.273	.393	.467	.591	.432	.323	1									
(8)	.311	.300	.378	.346	.329	.226	.469	1								
(9)	.366	.262	.275	.327	.352	.211	.494	.634	1							
(10)	.459	.371	.345	.360	.393	.268	.376	.517	.556	1						
(11)	.386	.279	.387	.370	.337	.191	.525	.653	.824	.606	1					
(12)	.209	.262	.382	.591	.384	.311	.534	.463	.399	.372	.433	1				
(13)	.370	.473	.480	.566	.601	.484	.576	.526	.527	.512	.541	.570	1			
(14)	.572	.521	.493	.479	.574	.492	.423	.372	.436	.488	.427	.420	.603	1		
(15)	.512	.458	.434	.542	.571	.401	.509	.449	.580	.510	.611	.487	.689	.738	1	
(16)	.518	.425	.411	.447	.552	.339	.501	.496	.700	.582	.688	.428	.627	.675	.838	1

* 모든 상관지수는 유의수준 $p = .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APN: 성인음란물 사용, CPN: 아동음란물 사용, VPN: 폭력음란물 사용, CSS: 아동성적가학증, CSA: 아동에 대한 성적홍분, CCD: 아동성추행에 대한 인지적왜곡, PAF: 타인상해환상, PAP: 육체적싸움, PAA: 상습적 분노, CON: 속임수 및 피상적매력, IMP: 충동성, EAB: 표출적 공격행동, EAF: 표출적 공격환상, HS: 과다성욕, SC: 성적강박, SP: 성적집착

(CSA)과의 상관지수가 .6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과다성욕(HS) .521, 표출적 공격환상(EAF) .473, 성적 강박(SC) .458, 아동성추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CCD) .449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성적가학(CSS)과 .518로 상관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과다성욕(HS) .493, 표출적 공격환상(EAF) .480, 타인상해환상(PAF) .467, 아동에 대한 성적홍분(CSA)과 .439의 상관지수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지수가 0.6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척도들이 있어 분산팽창인자(VIF)지수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VIF지수는 모두 10이하, Tol은 모두 0.1

보다 컸으며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모형의 분석

성범죄 유발요인이 음란물 사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음란물의 세 가지 유형, 즉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에 대해 데이터 탐색을 실시한 결과 성인음란물의 분포에 대한 왜도가 .651,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의 왜도가 각각 2.135, 2.962로 아동과 폭력음란물의 데이터 분포가 0에 치우쳐져 있음이 확인되

었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사용한 결과 성인음란물 .124, $p=.000$, 아동음란물 .275, $p=.000$, 폭력음란물 .306, $p=.000$ 로 종속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이고 정규분포가 아니며 0에 치우쳐져 있을 때 사용하는 감마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정하였다.

성인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감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다성욕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음란물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76$, $p=.000$. 또한 사이코패시 하위척도인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음란물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150$, $p=.008$ (표 5 참조).

한편 아동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감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은 아동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59$, $p=.000$. 성인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과다성욕 역시 아동음란물 사용을 예측하였으며, $B=.191$, $p=.001$, 타인을 해하는 환상이 $B=.242$, $p=.003$,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가 $B=.122$, $p=.039$ 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 사용에 대한 예측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정도, 과다성욕, 타인을 해하는 환상,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음란물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마지막으로 폭력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감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과다성욕은 폭력음란물의 사용 역시 예측하고 있었다, $B=.277$, $p=.000$. 이

표 5. 성인음란물 사용의 결과표

예측인자	B	SE	Wald	p
상수	1.629	.1229	175.599	.000
아동에 대한 가학적 성향	-.045	.1149	.154	.695
아동성추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	-.085	.0705	1.443	.230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	.017	.0743	.051	.822
표출적 공격 행동	-.091	.0713	1.613	.204
표출적 공격 환상	-.075	.0794	.903	.342
타인상해 환상	.025	.0776	.100	.752
육체적 싸움	.074	.0608	1.490	.222
상습적 분노	.009	.0724	.017	.897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	.150	.0565	7.058	.008**
충동성	-.018	.0844	.043	.835
과다성욕	.276	.0572	23.233	.000***
성적강박	.060	.0879	.472	.492
성적집착	.081	.0795	1.026	.311

$$\chi^2 = 117.857 (p < .001)$$

$$LL = -732.882, \text{ deviance/df} = .18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아동음란물 사용의 결과표

예측인자	B	SE	Wald	p
상수	.816	.1291	39.923	.000
아동에 대한 가학적 성향	-.100	.1211	.687	.407
아동성추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	-.081	.0746	1.164	.281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	.459	.0778	34.846	.000***
표출적 공격 행동	-.135	.0749	3.241	.072
표출적 공격 환상	.091	.0858	1.120	.290
타인상해 환상	.242	.0818	8.712	.003**
육체적 싸움	.047	.0643	.535	.465
상습적 분노	-.004	.0775	.003	.955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	.122	.0592	4.250	.039*
충동성	-.150	.0922	2.645	.104
과다성욕	.191	.0580	10.842	.001**
성적강박	.144	.0916	2.464	.116
성적집착	-.150	.0827	3.282	.070

$\chi^2 = 174.942 (p < .001)$
 $LL = -590.366, deviance/df = .21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폭력음란물 사용의 결과표

예측인자	B	SE	Wald	p
상수	.327	.1158	7.955	.005
아동에 대한 가학적 성향	.260	.1070	5.887	.015*
아동성추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	-.006	.0682	.008	.928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	-.086	.0707	1.493	.222
표출적 공격 행동	-.135	.0690	3.810	.051
표출적 공격 환상	.139	.0759	3.347	.067
타인상해 환상	.171	.0697	5.999	.014*
육체적 싸움	.117	.0580	4.058	.044*
상습적 분노	-.073	.0679	1.170	.279
피상적 매력 및 속임수	-.009	.0515	.032	.857
충동성	.061	.0782	.607	.436
과다성욕	.277	.0529	27.478	.000*
성적강박	-.022	.0868	.064	.800
성적집착	.014	.0759	.035	.852

$\chi^2 = 161.339 (p < .001)$
 $LL = -468.929, deviance/df = .166$

* $p < .05$ ** $p < .01$ *** $p < .001$

밖에 타인을 상해하고자 하는 환상이 $B=.171$, $p=.014$, 상습적 분노의 소척도인 육체적 싸움이 $B=.117$, $p=.044$, 아동에 대한 가학적 환상이 $B=.260$, $p=.015$ 로 폭력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또 다른 변수로 확인되었다(표 7 참조).

논 의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음란물 유형과 상관없이 사용 빈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과다성욕으로 나타났다. 과다성욕 척도는 성인음란물, 아동음란물, 폭력음란물 모두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성욕이 과다할수록 다양한 유형의 음란물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요인 역시 성인음란물과 아동음란물의 사용을 예측하고 있어, 피상적 매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을수록 성인음란물과 아동음란물의 사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음란물에 해당하는 아동음란물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 성향이었다. 아동에 대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향이 있을수록 아동음란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상해하는 환상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아동음란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폭력음란물 사용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폭력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과다성욕 이외에 타인상해 환상, 아동에 대한 가학적 성향, 육체적 싸움을 자주 하는 경향 등 공격성 관련 성향이 높을수록 폭력음란물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사용과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많은 요인들이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을 잃었으며, 성범죄 유발요인 중 음란물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축소시켰다.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의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성인음란물은 과다성욕과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요인이, 아동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성적흥분, 과다성욕,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타인상해환상 요인이, 폭력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가학적 성향, 타인 상해환상, 과다성욕, 육체적 싸움 성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으로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 중 어떠한 요인들이 각 유형의 음란물 사용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음란물의 사용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음란물로 간주되는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을 성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요인들이 예측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다성욕은 성인음란물뿐 아니라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까지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고자 할 때 아동음란물에 이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성적 흥분감을 갖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폭력음란물에 이끌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에 상당부분 ‘성’과 ‘공격성’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란물 사용이 결국 과다한 성욕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성인음란물과 달리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은 그 대상과 내용이 아동이나 폭력성을 동반한 성적 활동 등 성적 일탈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음란물 사용이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음란물 사용과 달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와 연결시켜 논의해보면, Allen 등(1995)이나 Oddone-Paolucci 등(2000), Hald 등(2010)의 메타분석 결과에서 음란물 이용이 강간통념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

하는 표출적 공격성향 혹은 환상이 음란물 이용과 상관은 있었지만 음란물 이용을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피상적 매력을 활용한 기만 수준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음란물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음란물 이용이 여성에 대한 공격성보다는 일반적 공격성 수준과 보다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Malamuth 등의 연구에서 성범죄유발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특히 공격성과 관련된 위험 특징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음란물 이용에 따라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범죄자 집단에서 다양한 유형의 음란물 이용을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는 ‘성’과 ‘공격성’ 관련 요인들(예: 과다성욕, 피상적 매력을 이용한 기만, 폭력적 성향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성과 공격성 관련 요인은 성범죄의 가장 강력한 재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음란물 이용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결국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 이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란물에 더 이끌릴 가능성을 시사해 주며, 궁극적으로 음란물 이용으로 인해 성폭행 성향이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음란물이 성범죄 범행의 점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불법 음란물에 속하는 아동음란물 이용에 대한 예측에서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 성향이 아동 음란물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점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동 음란물에 더욱 잘 이끌리고 아동음란물 노출에 의해 성폭행 성향이 억제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범죄자나 일반인 등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출이 성범죄 범행을 점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성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음란물 사용이 특정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지는 않았다. 음란물의 사용 이후에 특정한 위험요인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현상도 역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란물 사용을 독립변수로 하고 위험요인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적 실험 연구 혹은 중단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사용 및 성범죄 유발요인을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척도가 가질 수 있는 기억의 한계나, 응답의 과대 혹은 과소보고 경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심리생리적 반응 등을 측정하는 실험연구가 수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범죄자라는 사실과 함께 본 연구 결과를 일반인과 같은 비범죄적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일부 일반인에게도 성폭행 가해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이 대체로 불법음란물 사용이 드문 일반인에게까지 적용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인, 일반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게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다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자 중 사전평가를 통해 음란물의 상습적 이용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 아동음란물 및 폭력음란물 사용이나 배포·제작 등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료자는 개별 성범죄자의 음란물 사용 경험과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된 성범죄 유발요인 등을 평가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위험요인이 음란물 이용에 더 이끌리게 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치료 대상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음란물이 전체적 성범죄 경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파악하도록 한다. 범죄 경로의 재구성을 통해 치료자는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음란물과 관련된 특정 위험요인의 감소 및 대안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개별 성범죄자가 아동음란물이나 폭력음란물의 이용 경험이 높을 시, 치료자(평가자)는 동 성범죄자가 아동에 대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향이나 아동을 성적으로 가학하는데 선호가 있는지 혹은 타인상해환상이나 잦은 폭력행사 등의 폭력적 성향이 과다한지 심리생리적 도구(예: 시각반응시간 측정도구, PPG)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범죄 경로상 이러한 성향과 과다 성욕이 결부되었을 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위험요인을 교정하여 적절한 대상과의 성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과 공격성 관련 범죄유발요인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음란물 이용이 성범죄 범행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음란물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에게는 이들이 불법음란물을 재사용하거나 접촉성 성폭력범죄를 범행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K-MDSA와 같은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나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성범죄 위험요인을 평가한 후, 불법음란물 사용에 기여한 위험요인의 감소를 치료 목표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에 나타났듯이, 과다성욕, 피상적 매력을 활용한 기만적 성향, 아동에 대한 성적 취향, 타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 등은 다양한 유형의 음란물 사용을 예측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불법음란물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성적 호기심 충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 위험 요인이 발현된 행동적 결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

면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 즉 위험 요인을 일정 부분 변화시킴으로써 음란물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범죄경로의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음란물과 성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증가되어 음란물과 성범죄가 주고받는 영향과 이들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모든 음란물 사용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음란물 사용자 중 일부는 특정 성범죄 유발요인을 높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음란물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 그리고 음란물 사용이 다시 그러한 요인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인가를 밝히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진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윤정숙, Marshall, W. L., Marshall, L. E., Knight, R. A., Sims-Knight, J. E., 이수정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윤정숙, Knight, R. A. (2013).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성식 (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11(2), 22-45.
- Abbey, A., McAuslan, P., Zawacki, T., Clinton, A., & Buck, P. (2001). Attitudinal, experiential, and situational predictor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 784-806.
- Abel, G. G., Becker, J. V., Cunningham-Rathner, J., Mittelman, M., & Rouleau, J. -L. (1988). Multiple paraphilic diagnoses among sex offender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16, 153-168.
- Allen, M., D'Alessio, D., & Brezgel, K. (1995a). A meta-analysis summarizing the effects of pornography II: Aggression after exposur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258-283.
- Allen, M., Emmers, T. M., Gebhardt, L., & Giery, M. (1995b). Pornography and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5, 5-26.
- Carr, J. L., & VanDeusen, K. M. (2004). Risk factors for male sexual aggression on college campu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 279-89.
- Cohen, M. L., Garafalo, R. F., Boucher, R., & Seghorn, T. (1971). The psychology of the rapist, *Seminars in Psychiatry*, 3, 307-327.
- Cohen, M. L., Seghorn, T., & Calmas, W. (1969). Sociometric study of the sex offen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249-255.
- Cooper, A. (2002). *Sex and the internet: a guidebook for clinicians*. New York: Brunner-Routledge.
- Daversa, M., & Knight, R. A. (2007). A structural examination of the predictors of sexual coercion against children in adolescent sexual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 1313-1333.
- Ellis, L. (1993). Rape as a biosocial phenomenon. In G. C. Nagayama Hall, R. Hirschman, J. R. Graham, & M. S. Zaragoza (Eds.), *Sexual aggression: Issues in etiology and assessment, treatment and policy* (pp.17-41).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rp.
- Groth, A. N., & Birnbaum, H. J. (1979). Men who rape. New York: Plenum Press.
- Groth, A. N., & Burgess, A. W. (1977). Rape: A sexual devi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400-406.
- Gunter G. (2002). *Media Sex: What are the iss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d, G. M., Malamuth, N. M., & Yuen, C. (2010). Pornography and attitudes supporting violence against women: Revisiting the relationship in non-experimental studies, *Aggressive Behavior*, 36, 14-20.
- Hanson, R. K., & Bussiè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1154-1163.
- Janssen, E., Carpenter, D. M & Graham, C. A. (2003). Selecting films for sex research: Gender differences in erotic film prefer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2, 243-251.
- Kingston, D. A., Fedoroff, P., Firestone, P., Curry, S., & Bradford, J. M. (2008). Pornography use and sexual aggression: The impact of frequency and type of pornography use on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Aggressive Behavior*, 34, 341-351.
- Kingston, D. A., Malamuth, N., Fedoroff, P., & Marshall, W. (2009).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ornography us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treating offenders. *Journal of Sex Research*, 46, 216-232.
- Knight, R. A., & Prentky, R. A. (1993).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for classifying juvenile sexual offenders. In H. E. Barbaree, W. L. Marshall, & S. M. Hudson (Eds.), *The juvenile sex offender* (pp.45-83). New York: Guilford Press.
- Knight, R. A., Rosenberg, R., & Schneider, B. (1985). Class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pectives, methods, and validation. In A. W.

- Burgess (Ed.), *Research handbook on rape and sexual assault* (pp.222-293).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Knight, R. K., & Schatzel, E. (2005, November). *The components and covariation of pornography in adults and juveniles*. Poster presented at the 24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Salt Lake City, Utah.
- Knight, R. A., & Sims-Knight, J. E. (2003).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exual coercion against women: Testing of alternative hypothese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A. Prentky, E. Janus, & M. Seto (Eds.), *Sexual coercion: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pp. 72-85).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Knight, R. A., & Sims-Knight, J. E. (2004). Testing an etiological model for male juvenile sexual offending against female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3*, 33-55.
- Knight, R. A., & Thornton, D. (2007). *Evaluating and Improving Risk Assessment Schemes for Sexual Recidivism: A Long-Term Follow-Up of Convicted Sexual Offenders*. Final Report, NCJ 217618, <http://nij.ncjrs.gov/publications>.
- Kosson, D. S., Kelly, J. C., & White, J. W. (1997). Psychopathy-related traits predict self-reported sexual aggression among colleg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241-254.
- Langton, C. M. (2003). *Contrasting approaches to risk assessment with adult male sexual offenders: An evaluation of recidivism prediction schemes and the utility of supplementary clinical information for enhancing predictive accur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Lo, V.,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 221-237.
- Malamuth, N. M. (1996). Sexually explicit media, gender differences, and evolutionary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s, 46*, 8-31.
- Malamuth, N. M. (1998). An evolutionary-based model integrating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men. In J. Adair, K. Dion, & D. Belanger (Eds.), *Advance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 Personal, social, and developmental aspects* (pp.151-184). Hove, UK: Psychology Press.
- Malamuth, N. M., Addison, T., & Koss, M. (2000).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Are there reliable effects and can we understand them?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26-91.
- Malamuth, N. M., & Huppini, M. (2005). Pornography and teenager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Adolescent Medicine Clinics, 16*, 315-326.
-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53-369.
- MIDSA Clinical Manual. (2008). Bend, OR: Augur Enterprises, Inc. Available at www.midsa.us.
- Oddone-Paolucci, E., Genius, M., & Violato, C. (2000).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pornography. In C. Violato, E. Oddone-Paolucci, & M. Genius (Eds.), *The changing family and child development* (pp.48-59). Aldershot: Ashgate.
- Oliver, M. B.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media effect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507-52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trick, C. J. (1994). Emotion and psychopathy:

-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 319-330.
- Patrick, C. J., & Zempolich, K. A. (1998). Emotion and aggression in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 303-338.
- Paul, B. (2009). Predicting internet pornography use and arousal: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Journal of Sex Research*, 46, 344-357.
- Prentky, R. A., Knight, R. A., & Lee, A. F. S. (1997).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among extrafamilial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41-149.
- Prentky, R. A., Knight, R. A., Lee, A. F. S., & Cerce, D. D. (1995). Predictive validity of lifestyle impulsivity for rapis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2, 106-128.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1990). A follow-up of rapists assessed in a maximum-security psychiatric fac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435-448.
- Senn, C. Y., Desmarais, S., Verberg, N., & Wood, E. (2000). Predicting coercive sexual behavior across the lifespan in a random sample of Canadian m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95-113.
- Senn, C. Y., & Radtke, H. L. (1990). Women's evaluations of and affective reactions to mainstream violent pornography, nonviolent erotica, and erotica. *Violence and Victims*, 5, 143-155.
- Serin, R. C. (1996). Violent recidivism in criminal psychopaths. *Law and Human Behavior*, 20, 207-217.
- Serin, R. C., & Amos, N. L. (1995). The role of psychopathy in the assessment of dangerou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18, 231-238.
- Serin, R. C., Mailloux, D. L., & Malcolm, P. B. (2001). Psychopathy, deviant sexual arousal, and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234-246.
- Seto, M. C., & Barbaree, H. E. (1999). Psychopathy, treatment behavior, and sex offender recidiv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1235-1248.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1986).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ega, V. & Malamuth, N. M. (2007). Predicting sexual aggression: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ggressive Behavior*, 33, 104-117.

1 차원고접수 : 2015. 03. 10.

수정원고접수 : 2015. 06.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7. 15.

Criminogenic Factors of Sex Offense Predicting Pornography Use

Jeongsook Yo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pornography use and sex offense has been increasing.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covariates of pornography use, but recent research on the predictive utility of pornography use for sex offense, or vice versa, has been emerging. We examined the criminogenic factors of sex offense predicting pornography use with sex offenders in this study. We have found that hypersexuality predicted adult pornography use, child pornography use, and violent pornography use. Sexual arousal toward child predicted child pornography use. Sexual sadism toward child predicted violent pornography. Aggression-related factors such as fantasies of hurting other people, propensity of physical fighting also predicted violent pornography.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implications of practicing the sex offender treatment.

Keywords : pornography use, sex offense, criminogenic factors, sex offender treatment.